

이야기 3 : 가인과 아벨

주제말씀
[창세기 4: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온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 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었어요. 두 아들은 무력무력 자랐어요.

형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며 얻은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형 가인도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셨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고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한 질투가 온통 가인의 마음을 뒤덮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아벨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동생이나 돌보는 사람인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물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가인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었지만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Cain and Abel 3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4:7)

...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활동 2.

예물을 잘라 알맞은 곳에 붙여주세요.

가인 ←



→ 아벨



